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계절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 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가정 소식

아이들이 다음 주면 긴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요르단은 오락 거리가 한국처럼 많이 있지 않지만 긴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이 잘 쉬고 다음 새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역 소식

코로나가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국경 교류나 여행 규제가 원활해진 반면 요르단 내 물가 상승, 유가 인상, 2배 오른 전기세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현지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세나 태도가 성장해 감을 보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르치려 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심에 감사하며 선한 통로로 이곳에서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와그닷흐 지역 센터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무슬림인 센터장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며 더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일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센터의 재 오픈을 위해서도 필요한 재정과 상황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새로운 현지 도장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센터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방학 전에 남아 있는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